

JAPAN

#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JAPAN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주간 심층이슈

## 『2012년 일본 엔터테인먼트 히트 동향과 분석』

### ◎ 작성취지

- 금년도 일본 엔터테인먼트 히트 콘텐츠 및 스타에 내재되어 있는 키워드는 “공감 및 일체감”이 강조된 한 해였음. 새로운 것이나 도전적인 것보다 익숙함에서 다수의 공감을 구하는 소비트렌드가 돋보였음.
- 이런 보수적 소비경향의 배경에는 동일본 대지진 및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함. 이러한 소비기조가 장기화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음. 특히 내년 아베정권의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흐름이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임.
- 금년도 일본 엔터테인먼트 히트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구조와 속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콘텐츠의 일본진출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닛케이 엔터테인먼트 2013년 1월호 등을 참고

### ◎ 작성순서

- 1. 2012년 일본 엔터테인먼트 히트 경향 분석
- 2. 개별 히트 콘텐츠&스타 분석

## 1. 2012년 일본 엔터테인먼트 히트 경향 분석

### ■ 2012년 히트 동향 분석

#### ○ 새로운 히트를 만드는 공감/일체감/리얼감

- 2012년 히트 순위 기준은 영화,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 게임소프트, 서적 등 모든 장르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판매(시청률, 패키지판매, 이벤트 동원 등), 신선감(업계에 있어 얼마나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 사회적 영향도(미디어 노출, 팬이나 유저들에

## 게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이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각 종 판매 등의 데이터에 관한 표기가 별도로 없는 경우, 텔레비전 시청률은 비디오테이퍼치(관동지역), 음악 CD는 사운드스캔, 서적은 오리콘, 게임은 패미츠 조사를 기준으로 편집부에서 작성, 영화 흥행은 편집부 조사 데이터임

- 엔터테인먼트 히트는 시청률과 패키지 등의 판매와 더불어 미디어 노출과 사회에 끼친 영향도, 업계에 미친 영향,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활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금년부터 히트랭킹을 순위 형식에서 전환해 일본 스모의 서열등급에 따라 정했음.
- 금년에 동서(東西)의 “요코즈나(横綱)\*”로 뽑힌 것은 AKB48와 아라시(嵐)라는 2개의 몬스터그룹임
  - ※요코즈나(横綱)는 일본의 전통 경기인 스모에서 최고위의 칭위를 일컬음. 본 조사는 일본의 전통 경기인 스모의 순위 방식을 인용해 정리하고 있음.
- 금년에는 흥행수입 100억 엔을 넘긴 영화는 없고, 평균 시청률 20%를 넘은 연속 드라마는 한 작품 밖에 불과했음. 서적도 100만 부를 넘긴 것은 단 한 권도 없었음
- 히트 규모가 작았던 2012년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이지만, AKB48와 아라시(嵐)가 갖고 있는 판매 및 동원 스케일은 굳이 일확천금이었음.
- AKB48는 여전히 밀리언셀러를 잇따라 기록했음. 5월에 ‘마나츠노(真夏の : 한 여름의) Sounds good!’는 9년 만에 200만 장 출하를 기록하는 등, CD판매에서는 월등했음.
- 일본레코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월~10월의 오디오생산은 장 수 베이스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지만, 이런 호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커다란 요인이 AKB48 그룹의 활약 때문임
- 한편 아라시(嵐)는 5년 연속으로 도쿄 국립경기장(国立競技場)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2일 동안 14만 명을 동원함
- 11월부터는 전국 5대 돔에서 총 16회 공연, 합계로 87만 명을 동원해 자체 신기록을 수립했음.
- 아라시(嵐)의 높은 라이브 인기는 DVD판매에서 확인할 수 있음. 10만 장 이상이 팔리면 대히트라고 보고 있는 음악DVD 세계에서 2011년 투어를 수록한 아라시(嵐)의 최신 DVD는 70만 장 이상을 돌파함

- 두 그룹 모두 이렇게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표 1 】 2012년 히트 순위

순위	동(東)	서(西)
요코즈나	AKB48	아라시(嵐)
오오제키	아사히텔레비(朝日テレビ)	우메짱센세이(梅ちゃん先生)
세키와키	테르마에로마에(Thermae Romae)	런던올림픽
고무스비	스기짱(スギちゃん)	늑대아이 아메와 유키(おおかみこども雨と雪)
마에가시라1	모모이로크로바Z	캐리파뮤파뮤(きゃりぱみゅぱみゅ)
마에가시라2	아리요시 히로유키(有吉弘行)	LINE
마에가시라3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 Q	간자니에이트(関ジャニ∞)
마에가시라4	BRAVE HERTS 우미자루(海猿)	쿠로코의 농구(黒子のバスケ)
마에가시라5	고우리키 아아메(剛力彩芽)	신격의 바하무토(新撃のバハムート)
마에가시라6	비브리아 고서점의 사건수첩 (ビブリア古書堂の事件手帳)	Kis-My-Ft2
마에가시라7	듣는 힘(聞く力)	마츠자카 토유키(松阪桃李)
마에가시라8	오노 마치코(尾野真千子)	바람의 검심(るろうに剣心)
마에가시라9	만지는 탐정 버섯 재배 키트 (おさわり探偵なめこ栽培キット)	마법소녀 마도카 ☆ 마기카
마에가시라10	아야노츠요시(綾野剛)	퍼즐 & 드래곤즈
마에가시라11	진(자연의 적 P)	토린도루 레이나(トリンドル玲奈)
마에가시라12	TIGER & BUNNY	구리하라 루이(栗原類)
마에가시라13	Daigo	조조의 기묘한 모험
마에가시라14	유키 사오리(由紀 さおり) & Pink Martini	드래곤즈 도그마(DRAGON's DOGMA)
마에가시라15	이에이리 레오(家入レオ)	쿠스미 마사유키(久住昌之)
마에가시라16	니코니코 초회의 (ニコニコ超会議)	다나카 신야(田中慎弥)

- AKB48는 2012년 애니메이션과 Google+ 등의 미디어에도 진출함
- 아라시(嵐)는 2011년 도쿄에서 개최한 수업 스타일의 이벤트 <와쿠와쿠갓코(ワクワク学校)>를 2012년은 오사카(大阪), 미야기(宮城), 후쿠오카(福岡)에서도 개최함
- 앞서 언급한 국립경기장 라이브는 <아라페스>라는 타이틀로 팬들의 리퀘스트에 입각해 구성하는 등, 다양한 스타일을 모색하고 있음
- 두 그룹 모두 현재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견인하는 “요코즈나(横

綱)”의 타이틀에 걸맞은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음

### ○ 오리지널 작품이 감소

-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를 돌아보면, 2012년은 새로운 인기 연예인의 등장이 적었던 점과 오리지널 작품의 부진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 예를들면, 영화에서는 70억 엔을 넘어 연간 흥행수입 1위를 기록한 <BEAVE HEARTS 우미자루(海猿)>, 그 뒤를 62억으로 2위를 차지한 <춤추는 대수사선 THE FINAL 새로운 희망> 등, 탑 20 작품 중, 14개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의 속편이었음
- 더욱이 5개 작품은 만화 또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순수한 오리지널 작품은 <늑대아이 아메와 유키> 한 작품뿐이었음
- 음악에서는 연간 앨범 랭킹 상위 10작품 중, 5개 작품은 미스터 칠드런, 구와타 게이스케(桑田佳祐), 야마시타 다츠로(山下達朗) 등 베테랑 가수들의 베스트판이었음
- 베스트셀러 서적을 보면, <카비 댄스>, <다니타 식당>, <롱브레스 다이어트> 등, 미용 관련 실용서적의 발매가 돋보였음.
-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에는 ‘신규성’을 중시함
- 판매의 절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거나 전년 이상으로 큰 성장을 기록한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2012년 히트 상품 순위의 특징임
- 상위에 들어온 것을 보면, 지금 히트&브레이크를 만들어 내고 있는 키워드로써 “공감”, “체험”, “진품감” 이라는 3가지 키워드임.

## ■ ‘때 늦은’ 브레이크가 이어짐

### ○ 대기만성형 연예인의 대두

-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 수년 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공감형’ 엔터테인먼트임
- 카리스마성이나 화려함(gorgeous)을 갖춘 ‘동경형’이 자취를 감추고 겸손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작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음

-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주인공이 놓여 있는 상황과 과거의 경험 등이 자신들의 것과 오버랩되는 여지를 주는 것임. 때문에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슈퍼 히어로’가 아님. 지극히 평범한 감각을 가진 이웃에 있을 것같은 히어로 또는 히로인임
- 평균 시청률이 유일하게 20%를 넘긴 드라마 <우메짱 센세이(梅ちゃん先生)>는 전후의 도쿄 가마타(蒲田)에서 마을 의사로 개업한 우메코(梅子)의 일대기를 그린 NHK의 일일드라마임.
- 하지만, 히로인은 원래 공부를 잘 못하는 소녀였지만, 가족과 지역 사람들의 도움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 폭 넓은 층의 지지를 받음
- 극장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 <우미자루(海猿)>도 해난 사고를 극복해 나가는 잠수사의 활약을 초인적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항상 위험 속에서 인명 구조에 힘쓰면서 사실은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소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공감대를 형성함
- 애니메이션 <TIGER & BUNNY>의 주인공은 특수 능력자로서 마을을 지키는 와일드 타이거(Wild Tiger) 카부라기.T.코테츠(Kotetsu.T.Kaburagi). 그는 전성기를 지나 초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느껴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임. 이것이 2012년의 히어로상임.
- 픽션뿐만 아니라 탤런트도 ‘공감도’가 인기를 좌우함. 그 결과, 2012년에는 어려움을 겪은 과거를 갖고 있는 ‘대기만성형’ 탤런트가 잇따라 두각을 나타냄
- 그 필두 격이 스기짱(スギちゃん)이라고 할 수 있음. 그는 ‘R-1 그랑프리’ 준우승으로 브레이크함. 하지만, 경력은 18년으로 그 동안 콤비 해산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캐릭터를 몇 번씩 교체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함
- 그 외에도 Hi-Hi나 바이킹구 등 오랜 무명 시절은 보낸 탤런트들의 브레이크가 잇따랐음.
- 지금은 16편의 고정 출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아리요시 히로유키

- (有吉弘行)도 사루간세키(猿岩石)로 브레이크한 뒤, 오랫동안 인기를 얻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는 코미디언임
- 아이돌로는 첫 앨범이 30만 장 이상이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Kis-My-Ft2를 꼽을 수 있음
  - 2005년에 결성된 뒤 2011년 데뷔까지 6년 이상이 걸림
  - 가장 나이가 많은 기타야마 히로미츠(北山宏光)는 데뷔 때 25세로 자니즈사무소의 <데뷔 최연장 기록>을 갱신하기도 함(그 뒤, A. B. C-Z의 고세키 고우이치(五関晃一)가 26세로 갱신)
  - 작가로는 제146회 상을 수상한 다나카 신야(田中慎弥)가 있음
  - 회견장에서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혀,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된 그는 39세이었음
  - 어머니와 함께 살며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생활 방식도 주목을 받음

## ■ 애니메이션 라이브에서 인기 확대

### ○ ‘일체감’ 을 느낄 수 있는 라이브 시장 확대

-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름 페스티벌 <후지록 페스티벌 2012>가 16년째를 맞이하여 역대 최다인 14만 명을 동원하는 등, 2012년은 라이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한 해이었음
- 이런 ‘일체감’ 을 느낄 수 있는 라이브의 매력으로 인기를 모은 아티스트도 많았음
- 대표격이 모모이로 크로바 Z임. 전력을 다하는 퍼포먼스와 트릭(gimmick)이 넘치는 스테이지 연출이 화제를 모으면서 아이돌에 흥미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팬 층을 확대하는 데 성공함
- 첫 홀 라이브 공연에서 겨우 1년 반 만에 세이부(西部)돔에 3만 7,000명을 모을 정도로 성장함
- ‘일체감’ 으로 인기를 모은 것은 음악 아티스트뿐만이 아님. 인기 애니메이션 이벤트는 영화관에서 ‘라이브 뷰잉’ 이 정착됨
- 4월에 마쿠하리 멧세(幕張メッセ)에서 개최된 <니코니코 초회의(ニコニコ超会議)>에는 이틀간에 9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함

- 이런 영상 콘텐츠도 라이브에서 팬을 확대하는 시대가 되었음
- 2012년은 오랜만에 해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이 많았던 해이었음
- 일본 전국을 흥분시켰던 런던올림픽은 시차가 9시간이나 있었지만, 여자 축구 등의 중계는 시청률 20%를 넘김
- 도쿄의 긴자(銀座)에서 열린 메달리스트의 퍼레이드에는 5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됨
-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일본에서 히트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음
- 기발한 프로모션 비디오가 화제를 모아 YouTube에서 재생 횟수가 8,000만 회를 넘은 것이 캐리 파뮤파뮤(きゃりぱみゅぱみゅ)임
- 유키 사오리(由紀さおり)의 앨범은 미국 iTunes의 재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소개되면서 CD가 3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함
- 이 둘 모두 해외에서 먼저 평가를 받음으로써 이의 ‘진정한 가치’가 전해져 히트가 됨
- 저출산 고령화로 마켓이 축소되고 있고 한국에서 온 아티스트들의 성공에도 자극받아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계에서는 해외 진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일본인보다 먼저 외국인이 그 매력을 아는 이런 역 수입형의 히트는 2013년 이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2. 개별 히트 콘텐츠&스타 분석

### ■ 금년도 최대 히트 엔터테인먼트 아라시(嵐)와 AKB48

- 요코즈나 (동) : 아라시(嵐), 더욱 커지는 판매 파워로 자기 기록을 갱신
  - 금년 10월 31일 발매된 앨범 <Popcorn>이 11월 11일 기준으로 78만 장을 기록함
  - 전작을 웃도는 페이스로 자신들의 기록을 꾸준하게 갱신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 6월에는 지금까지 DVD 총매출이 614.4만 장을 돌파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6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아티스트는 사상 처음임
  - 2위를 기록한 모닝구 무스메의 272.4만 장에 비해 2배 이상 격차를



별린 아라시(嵐)의 기록은 명실상부한 ‘몬스터그룹’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음


- 5월에 출시된 DVD “ARASHI LIVE TOUR Beautiful World(연간 DVD 랭킹 1위)”가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아라시(嵐)의 판매 곡선은 아이돌로써는 흔치않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임
- 몇 가지 다른 버전으로 출시해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당연한 마케팅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라시(嵐)처럼 수록곡이 동일한 ‘첫회판’과 ‘일반판’만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아티스트는 극히 적음
- 발매일 전에 점포 판매에서는 사라져버리는 ‘첫회판’은 예약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개인으로써는 드라마 성적이 눈에 뜨임
- 오오노 사토시(大野智)의 <열쇠가 잠긴 방>(4월기 후지테레비 계열 방송)과 마츠모토 준(松本潤)의 <럭키세븐>(1월기 후지테레비 계열 방송)이 함께 연간 드라마 랭킹 탑10에 진입함
- 아이바 마사키(相葉雅紀)의 <삼색털 고양이 홈즈의 추리>(4월기 닛테레 계열 방송)도 13위에 진입하는 등 건투하고 있음
- 그 외에는 니노미야 가즈나리(二宮和也)가 주연을 맡은 단편 드라마 <휠체어로 저는 하늘을 날아요>(닛테레 계열)이 23.8%의 높은 시청률을 획득함
- 멤버 각자가 “숫자를 버는 배우”로서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음
  - ※<24시간 텔레비전35>(닛테레계열)에서는 3년째 메인 사회 담당. 방송 시간은 26시간 39분 평균 시청률은 17.2%
- 현재 개인을 포함한 TV광고 계약사 수는 23사로 올해는 그룹으로써의 출연이 2사 늘어나며 아라시(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짐.

○ 요코즈나 (서) : AKB48, SMAP이래 200만 장 달성, 애니메이션/인터넷/해외 전개

- AKB48은 음악 면에서 활동은 12월에도 압도적이었음. 11월까지 발매한 싱글 4장, 앨범 1장은 모두 밀리언셀러(오리콘 조사)를 기록함

- 특히 5월에 발표한 <마나츠노(真夏の) Sounds good!>은 SMAP의 <세카이니히토츠다케노하나(世界に一つだけの花 : 세상에 하나뿐인 꽃)> 이래, 9년 만에 200만 장 이상 출하를 기록함
- 라이브에선 8월에 결성 이후 목표로 삼고 있었던 도쿄돔 공연이 실현
- AKB48에서 ‘부동의 센터’ 를 유지하고 있던 마에다 아츠코(前田敦子)의 졸업이 함께 겹치면서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3일 동안 14만 명 이상을 동원함. 병행해서 4월부터 첫 전국 투어도 시작됨

【 표 2 】 아라시와 AKB48의 새로운 기록

특징		아라시
1	DVD 총판매 614만 장으로 역대 1위	
2	앨범 첫 주 판매가 전작을 웃도는 78만 장	
3	투어 동원수가 자체 최고 기록 87만 명 ※5년째를 맞는 국립경기장 라이브. 함께 시작한 돔 투어를 포함한 동원 수는 87만으로 최고	
특징		AKB48
1	발매 CD는 모두 밀리언셀러, 첫 3일 동안 14만4,000명 동원도쿄돔 콘서트도 개최	
2	총선거, 마에다 아츠코(졸업 등 골든 타임에 생중계	
3	자매그룹과 교류, 애니메이션 등 활동 형태 다양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JKT48은 9월에 전용극장이 오픈 예정	

- TV에서의 존재감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4월부터 매주 화요일 21시에 SMAP의 나카이 마사히로, 배우 에쓰미 마키코, AKB48 등이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 <가요고쿠(火曜曲!)>(TBS계열)이 시작됨
- 신사복 메이커 하루야마 상사(haruyama商事), 닛신식품(日清食品) 컵라면 등의 CF도 새롭게 시작됨
- 원래는 팬들을 위한 이벤트였던 <선발 총선거>, <마에다 아츠코(前

- 田敦子)졸업공연), <가위바위보 대회> 등도 지상파방송의 골든 타임대에 생중계되어, 특히 <총선거>는 18.7%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함
- 기존의 미디어 전개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미디어 진출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4월부터는 그룹을 모티브로 한 SF애니메이션 <AKB 0048>를 방송, 와타나베 마유(渡辺摩友), 사토 아미나(佐藤亜美菜)를 비롯한 선발 멤버가 성우를 맡음.
  - 2011년 12월부터는 멤버 모두가 Google+에 참가해 팬과 직접 교류하는 등, 라이브 중계 등도 활용하기 시작함
  - 자매 그룹인 나고야 기반의 SKE48, 오사카 기반의 NMB48은 싱글 판매가 50만 장 전후까지 성장함
  - 공식 라이벌 노기사카(乃木坂)46도 데뷔했고 2013년에는 HKT48의 멤버들의 데뷔도 예정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전개하고 있는 JKT48와 교류를 하는 등, 이후는 해외진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 히트 2위 테레비아사히와 우메짱 센세이

### ○ 오오제키大関(동) : 우메짱 센세이(梅ちゃん先生)

- 우메짱 센세이는 부흥과 가족 연대감을 테마로 연속드라마 평균 시청률 20%를 넘김
- 호리기타 마키(堀北真木)가 주연한 NHK아침 연속 텔레비전소설 <우메짱 센세이(梅ちゃん先生)>는 기간 평균 시청률 20.7%를 기록하면 민간방송국을 포함한 2012년 연속 드라마 시청률 탑을 차지함
- 아침드라마가 평균 시청률 20%를 넘긴 것은 2003년 <고코로(こころ : 마음)> 이후 9년만의 쾌거임
-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드라마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으로 초토화된 도쿄의 가마타(蒲田)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밝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주인공 우메코(梅子)와 가족들, 주위 사람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음

- 최근 아침드라마에서는 주연뿐만 아니라 무카이 토오루(向井理), 아야노 츠요시(綾野剛) 등 상대역의 남자 배우들도 브레이크하고 있음
- 주연을 맡은 호리키다(堀北)는 연말에 열리는 <홍백 가요전>의 사회에 발탁되었고 남편 역을 맡은 마츠자카 토우키(松阪桃李)도 주연작품이 이어지면서 활발히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음

【 표 3 】 우메짱 센세이와 테레비아사히의 새로운 기록

순위		우메짱 센세이(梅ちゃん先生)
1	2012년 연속 드라마 시청률 1위	
2	아침 드라마 평균 20% 이상은 9년만의 기록	
3	동일본대지진 부흥지원 드라마	
순위		테레비 아사히
1	4월 분기 개국 이래 시청률 3관왕	
2	<가면라이더>를 비롯해 다수의 영화도 히트	
3	동영상 VOD 등 방송 외 수입도 호조	

○ 오오제기大関(동) : 테레비아사히

- 개국 이래 ‘첫’기록을 연발하며 처음으로 시청률 왕으로 등극
- 4월에 개국 이래 처음으로 월간 시청률 3관왕을 시작으로, 4~6월은 3개월 연속으로 시청률 탑을 유지함
- 오랜 기간 동안 니혼테레비와 후지테레비의 수위 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TV방송국의 세력도를 바꿈
- 7월 이후는 니혼테레비가 만회했지만, 연도 상반기의 프라임 시간대(19~23시)에서는 테레비아사히가 탑을 유지함
- 이후에도 니혼테레비와의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리며 연간 시청

- 를 3관왕에 어느 방송국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테레비아사히의 대약진의 주요 요인은 드라마, 예능, 보도 등 정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상승한 것과 축구와 피겨스케이팅 등 스포츠 중계가 모두 높은 시청률을 얻었기 때문임
  - 10월기에도 새로운 드라마 <닥터-X ~외과의 다이몬 미치코(大門未知子)~>가 연간 시청률 랭킹 3위를 차지하며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

### ■ 히트 3위 데루마에로마에와 런던올림픽

#### ○ 세키와키大関(동) : 테르마이로마이(Thermae Romae)

- “일본인은 고대 로마인과 비슷???” 이라는 의외성이 히트로 이어져 극장 흥행 2위 기록함
- 시리즈 누계 500만 부 발행의 인기 코믹을 영화화해 연간 2위의 흥행 수입 59억 엔을 기록함
- 시리즈를 제외하면 실사판 일본영화 중에서 1위의 실적임
- 원작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히트 이유는 영상의 임팩트에 있음
- 주인공인 고대 로마인 루시우스역은 원작자 야마자키 마리도 책임자로 절찬한 아베 히로시(阿部寛)가 맡았고, 그 외 로마 황제를 이치무라 마사노리(市村正親), 측근에는 기타무라 가즈키(北村一輝) 등 얼굴이 외국인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한 배우들을 기용한 것이 최대 히트 요인으로 작용함
- 일본인은 평면적인 얼굴로 임팩트가 작다는 선입관을 거꾸로 이용해 고대 로마인을 완벽하게 연기함
- 한편 일본인 역에는 대단히 전형적인 일본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해 대조적인 이미지를 강조함
- ‘얼굴의 갭이 볼거리!’ 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폭넓은 층에서 화제를 모아 히트로 이어짐

○ 세키와키(서) : 런던올림픽

- 여자 축구의 첫 메달 등으로 고시청률을 연발함. 도쿄 긴자(銀座)에서 개최된 메달리스트의 퍼레이드에는 50만 명의 팬이 모이기도 함
- 북경올림픽의 개최식은 영화감독 장이모가 연출을 맡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런던 올림픽의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프로듀서인 대니 보일이 맡아 또 다른 주목을 받음
-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길 요소가 많았던 빅 이벤트였음.
- 경기에서는 일본 여자 축구가 처음으로 은메달을 땀고 사상 최다 종목 38경기에서 메달(금7, 은14, 동17)을 획득함
- 이것을 기념해서 긴자(銀座)에서 처음으로 퍼레이드가 실시되어 50만 명이 몰리는 등, 많은 ‘첫’ 기록들이 만들어짐

▣ 표 4 ▣ 런던올림픽과 테르마에로마에의 새로운 기록

테르마에로마에		
1	일본인이 로마인 열연	
2	이탈리아의 촬영소에서 촬영	
3	만화대상과 오오츠카오사무문화상 단편상을 사상 처음으로 더블 수상	
런던올림픽		
1	메달리스트가 처음으로 개선 퍼레이드	
2	여자 축구 첫 메달 획득	
3	제임스 본드가 개막식에 등장	

▣ 히트 4위 늑대아이(おおかみこども雨と雪)와 스키짱

○ 고무스비小結(서) : 애니 ‘늑대아이(おおかみこども雨と雪)’

- 애니메이션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섬머워즈>의 호소다 마모

루(細田守)감독의 오리지널 작품 <늑대아이(おおかみこども雨と雪)> (스튜디오 지도 제작)은 일 년 중 가장 히트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7월에 개봉함

- 한 여성이 연애에서 결혼, 출산, 육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려 흥행 수입 42억 엔을 기록함
- 이것은 2011년 개봉된 스튜디오 지브리의 <고쿠리코 언덕에서>와 맞먹는 성적임
-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에 호소다 마모루(細田守)감독이 언급되며 화제를 모음
- 배급을 담당한 도호(東宝)는 3~8월 흥행수입이 전년대비 39% 증가했고, 2기만에 최고 수익 갱신을 할 것으로 보임
- 6월에 파리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했고, 세계 45개국과 지역에서 배급이 결정되는 등,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 고무스비小結(동) : 스키짱(スギちゃん)

- 대형 무대사고 등으로 화제를 많이 불러온 코미디언 경력 18년의 늦깎이로 인기를 얻은 연예인
- 솔로로 활동하는 일본의 연예인 결정전 <R-1 그랑프리 2012>에서 준우승을 한 것을 계기로 브레이크하기 시작함

■ 표 5 ■ 늑대 아이 아메와 유키와 스키짱의 새로운 기록

늑대 아이(オオカミこどもあめとゆき)	
1	엄마가 주인공인 오리지널 작품
2	전년의 지브리스튜디오 작품을 육박하는 흥행 수입 기록
3	세계 45개국과 지역에서 배급 결정
스기짱(スギちゃん)	
1	4월 이후 프로그램 출연은 200편 이상
2	차쿠신보이스 랭킹에서 1~3위 독점
3	예능 경력 18년만에 브레이크



- 유행어가 된 ‘~~시단다제~~. 와이루도 다로우~???’ 는 다른 여러 연예인이 흉내 내며 화제를 모아 4월에 휴대전화 보이스 전송이 개시되면서 그 주의 휴대전화 보이스 랭킹 상위 3위까지 독점하기도 함
- 이후 영화 선전이나 상품 캠페인 등 이벤트에 출연하면서 소프트뱅크와 SUBARU 등의 기업 텔레비전 광고에도 연이어 기용됨
- 7월 분기 드라마 <GTO>에 고정 출연, 오리지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복수 발매하는 등 파죽지세의 활약을 보이고 있음
- 9월에는 프로그램 녹화 중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기도 함
- 한 달간 입원 뒤 이례적인 스피드로 복귀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각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기 시작함

■ 히트 5위 캐리파뮤파뮤와 모모이로크로버Z

○ 마에가시라前頭1(동) : 캐리파뮤파뮤(きゃりぱみゅぱみゅ)

- YouTube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해외 인기’ 의 대표격으로 등장해, 데뷔한 지 겨우 1년 만에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인 아티스트'의 대명사가 됨

- 다나카 야스타카(capsule)의 프로듀서로 데뷔한 당시부터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전송을 시작함
- 팝으로 기발한 세계관을 표현한 뮤직비디오가 화제를 모으며 YouTube에서 주요 4곡의 재생 횟수가 총 8,000만 회에 달함
- 7월에는 파리의 <Japan Expo>에도 출연했고, 2013년 2월부터 10개국을 도는 세계 투어를 개최할 예정임
- 일본 국내에서는 1st앨범 <파뮤파뮤 레볼류션>이 약 14만 장의 히트를 기록함
- 11월에는 첫 일본무도관 라이브도 성공적으로 개최함
- <SMAP×SMAP>(후지테레비)에서 이나가키 고로(稲垣伍朗)가 캐리의 패러디를 연기하는 등, 캐릭터가 안방에도 침투하고 있음
- “BREO” “g.u.” 등 CF도 급증하고 있음

#### ○ 마에가시라前頭1(서) : 모모이로크로버Z

- 세이부(西部)돔 콘서트에 3만 7,000명을 동원하며 싱글 CD판매가 10만 장을 돌파하는 등 아이돌 군웅할거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함
- 특히 라이브가 호평을 얻음. 아크로버틱을 응용한 유니크한 댄스, 호흡이 맞는 토크, 예능프로그램과 프로레슬링적인 연출 등, 신나는 내용으로 높은 집객력을 자랑함
- 아이돌이지만 록페스티벌이나 포크이벤트 등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함
- 폭 넓은 팬을 획득하고 10월에 일본무도관에 여성만 1만 명을 모으기도 함
- 한편, 2011년의 첫 앨범 ‘배틀 앤드 로맨스’가 2012년 개최된 “제4회 CD샵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음악에 대한 평가도 높음
- ‘국민적인 아이돌’로 한 발 더 나아간 1년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 캐리파뮤파뮤와 모모이로Z의 새로운 기록

순위	캐리파뮤파뮤(きゃりぱみゅぱみゅ)	
1	YouTube에서 PV가 8,000만 회 재생	
2	CF 증가, 안방에서도 인기	
3	2013년 해외 투어 결정	
순위	모모이로크로버Z(ももいろクローバーZ)	
1	단독 라이브에 3만7,000명 동원	
2	아이돌이지만 록페스티벌 참가	
3	첫 앨범이 CD샵 대상 수상	

■ 히트 6~20위 개요

○ 마에가시라前頭 2(동) : 아리요시 히로유키(有吉弘行)

- 고정 출연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독설 캐릭터이지만 호감을 주는 캐릭터로 인기
- 현재 고정 프로그램이 16편이고 그 중 6편이 2012년에 스타트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기를 모으면서 가속도가 붙었음
- 20~40대의 여성 시청자 앙케트를 베이스로 한 <런던하츠>(테레아사 히계열, 11월 방송)의 기획 ‘오토코사테이(男査定)’에서는 15명 중 1위를 차지하면 독설 캐릭터이면서도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낙남
- 팔로우가 177만 명을 넘은 트위터에서는 자신이 고안한 “쥬쥬노기 묘나보우켄(ジョジョの奇妙な冒険)” 실사판의 배급을 발표해 커다란 반응을 얻는 등, 텔레비전 이외에서도 화제가 많음
- 2013년도 코미디언 계를 견인하는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마에가시라前頭 2(서) : LINE

-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정착
- 약 1년 만에 유저 수가 세계 7,000만 명, 일본 국내 3,200만 명을 넘은(10월 25일 시점) 일본에서 만들어진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 표 7 】 아리요시 히로유키(有吉弘行)와 LINE의 새로운 기록

순위	아리요시 히로유키(有吉弘行)	
1	고정 출연 프로그램 16편	
2	트위터 팔로워가 177만 명	
3	히로시마현 관광대사 취임	
순위	LINE	
1	개시 1년만에 국내 3,000만 명 이상	
2	GREE나 Mobage의 대항마	
3	텔런트나 기업의 새로운 정보발신원	

- 폭 넓은 유저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으로 기업과 텔런트 등이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발신하고 있음
- 아이템 요금제의 게임 애플리케이션 <LINE GAME>도 시작해 GREE나 Mobage에 대응하는 큰 플랫폼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마에가시라前頭 3(동) :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 Q

- 90년대에 방송되어 사회현상이 된 <신세계 에반게리온>를 재구축한 극장판 제3탄이 11월 17일 개봉됨
- 토요일과 일요일 흥행수입이 11.3억 엔을 넘어, 2012년 개봉된 영화 오프닝 주말 흥행수입 제1위를 기록함

- 개봉 전에 스토리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한편, 로손과 ANA 등 150사 이상의 기업과 손을 잡고 각종 상품과 캠페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독자적인 마케팅 수법으로 존재감을 어필함
- 연초까지의 흥행을 노리고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예정임

○ 마에가시라前頭 3(서) : 간자니에이트(関ジャニ∞)

- 간자니는 ‘에이트이어’로 “자기 기록”을 연발함. 간자니는 데뷔 8년째를 맞이한 ‘에이트이어’를 기념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1년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멤버 전원이 오사카등 간사이 출신으로 구성, 자니스 사무소의 남성아이돌 그룹
- 7월에 개봉한 주연 영화 <에이트레인지>가 히트. 9월에 첫 스타디움 공연을 이틀간 개최하는 등, 2013년 1월까지 이어지는 투어와 이벤트에서 자체 최다인 88만 명을 동원함
- 10월에 릴리스한 첫 베스트판 <8EST>는 한 달 만에 약 36만 장과 CD 판매 규모도 확대됨

【 표 8 】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Q와 간자니에이트(関ジャニ∞)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Q	
1	개봉 첫 주말 흥행 기록 수립
2	기업과 함께 한 독자적인 선전 체제
3	하코네 등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개
	
간자니에이트(関ジャニ∞)	
1	88만 명 동원과 투어 규모 확대
2	첫 베스트판은 40만 장 이상
3	첫 주연 영화도 스맷쉬 히트
	

- 무가카미 신고(村上信五)는 4월부터 마츠코 데락크스와 함께 출연하는 <월요일부터 밤새기>(닛테레계열)이 시작하는 등 고정 프로그램이 6편, 마루야마 류헤이(丸山隆平)는 7월 분기 <보이스온더런>(테레비아사히계열)에서 연속 드라마 첫 주연을 맡는 등, 멤버 개인 활동도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음

○ 마에가시라 前頭4(동) : BRAVE HEARTS 우미자루(海猿)

- 영상, 스토리의 리얼리티로 개봉 영화 흥행수익 1위를 차지함
- 시리즈 4번째 작품으로 흥행수입 73억 엔으로 2012년 실사 일본영화 중 1위를 차지함
- 전작의 흥행수입은 80억 엔이었지만, 요금이 비싼 3D판이었기 때문에 동원력은 떨어졌음
- 높은 인기의 비밀은 이번 작품에서는 점보제트기를 최신 CG로 정밀하게 표현하는 등, 영상의 리얼리티가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내가 더 월급이 많다’ 라는 이유로 프로포즈를 거절당하거나 비

좁은 공동주택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소박한 식탁을 함께 하는 등, 결코 풍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평범한 대원들의 일상 생활 등도 리얼하게 묘사됨

-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싶다’ 는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는 모습을 묘사한 휴먼 스토리의 리얼리티도 매력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 ○ 마에가시라 前頭4(서) : 구로코의 농구(黒子のバスケ)

- 여성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붐을 일으킴
- <주간 소년점프>에 연재되고 있는 농구 만화가 4월에 애니메이션화 된 것을 계기로 크게 히트함
- 19권까지 나온 코믹의 누계 발행 부수는 1,400만 부이고, 5권까지 발매된 DVD&BD는 각권마다 2만 장 이상을 판매함
- 드라마CD와 상품 판매도 호조이며 이벤트도 성황리에 개최됨
- 스토리는 ‘기적의 세대’ 로 불리는 6명의 천재 소년들이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펼쳐지는 경쟁을 소재로 하고 있음
- 개성적인 꽃미남 캐릭터가 등장함으로써 10~20대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음

#### ○ 마에가시라前頭 5(동) : 고우리키 아야메(剛力彩芽)

- 텔레비전 광고 10사, 연속드라마에 연속으로 출연하는 등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바빴던 여배우
- ‘거인의 별(巨人の星)’ 의 캐릭터와 함께 출연하는 KDDI au를 비롯해 야마자키제빵, 카오, 야쿠르트 등 CF 10사 출연으로 지명도가 크게 상승됨
- 첫 단독 주연을 한 <틴코트> 등 연속 드라마 3분기 출연 외, 스페셜 드라마에도 다수 출연하며 실 새 없이 활동함
- 소속사무소인 오스카프로모션에서는 2011년 다케이 사키(武井咲)에 이어 브레이크한 여배우가 됨
- 2013년은 NHK대하드라마 <야에스노사쿠라(八重の桜)>에 출연할 예

## 정

- 마에가시라前頭 5(서) : 신격의 바하무토(新撃のバハムート)
  - 일본발 소셜게임이 세계 각국에서 No.1으로 등극
  - 일본에서 개발하고 해외판 Mobage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된 스마트폰용 소셜게임 <Rage of Bahamut>(일본 타이틀 신격의 바하무토)가 미국 AppStore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애플리케이션 매출 랭킹 1위를 획득
  - 미국의 Android 애플리 매출 랭킹에서도 16주 이상 연속 1위 획득
  - 아름다운 카드비주얼, 유저를 매료시키는 게임 운영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 일본의 카드 배틀게임은 세계에서 인기를 얻기 어렵다는 “선입관” 을 바꿈
  - DeNA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진출의 선두를 담당함
  
- 마에가시라前頭 6(동) : 비브리아 고서당의 사건 수첩(ビブリア古書堂の事件手帳)
  - 미인 점주의 수수께끼 사건 해결 시리즈로 300만 부 이상 판매
  - 미인 점주 시노가와 시오리코(篠川栞子)가 운영하는 고서점 ‘비브리아고서점’ 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찾아온 고서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미카미엔(三上延)의 연작 단편미스터리
  - 눈을 끄는 라이트노벨 풍의 일러스트 표지, 고서에 관해서는 박식하지만 극도로 사람 얼굴을 가리는 미인 점주 캐릭터, 고서만이 갖는 깊은 맛 등으로 지지를 받음
  - 시리즈 3작으로 발행 부수는 310만 부에 도달함
  - 2013년 1월부터 후지테레비 계열에서 월요일 9시에 드라마로 될 예정으로 주인공은 고우리키 아야메(剛力彩芽)가 맡으며 화제를 모음
  
- 마에가시라前頭 6(서) : Kis-My-Ft2
  - 데뷔 1년반 만에 안방에서도 인지도 상승함
  - 각종 미디어에서 한꺼번에 존재감을 높인 자니즈의 7인조 그룹

- 음악면에서는 2012년에 발매한 3장의 싱글이 모두 주간 1위를 획득함
- 3월에 앨범 “Kis-My-1st” 는 약 27만 장을 판매했는데, 2012년에 ‘가장 많이 팔린 1st앨범’ 이 됨
- 텔레비전에서는 4월부터 자신들의 그룹명을 내건 첫 프로그램 <하마키스(濱キス)>(테레비아사히계열)을 시작(10월부터 타이틀을 바꿈)
- 7월분기의 드라마 <비기너즈!>(TBS계열)에서 후지가야 타이스케(藤ヶ谷太輔)가 연속 드라마 첫 주연을 맡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힘

○ 마에가시라前頭 7(동) : 듣는 힘(聞く力)

- 아가와 사와코(阿川佐和子)의 20년간 시행착오가 응축된 에세이로 중장년 여성들의 지지를 얻어 60만 부 이상 판매
- 아가와 사와코(阿川佐和子)가 자신의 인터뷰 경험에서 ‘듣는 힘’ 을 테마로 적은 신서
- 20년 이상 계속해 온 인터뷰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정리한 것
- 배우와 탤런트 등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나타냄으로써 가벼운 수필 감각으로 읽을 수 있음
- 신서이지만 1월에 발매된 후 30~50대 여성들의 지지를 얻어 60만 부 이상을 판매함
- 2012년에 간행된 서적 중 1위를 차지함

○ 마에가시라前頭 7(서) : 마츠자카 도우키(松阪桃李)

- 아침드라마에서 인기를 얻어 차세대 주연 남자배우로 성장
- NHK연속 텔레비전 소설 <우메짱 센세이(梅ちゃん先生)>에서 주인공의 남편 ‘노부’ 역을 맡아 인기를 얻음
- 첫 주연 영화 <츠나구>도 흥행수입 16억 엔(예상치)로 히트했고, 12월에는 러브스토리 <오늘 사랑을 시작한다>, 2013년에는 <이겨라! 승리호>와 주연 영화의 개봉이 연이지고 있음
- 차세대 배우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가운데 모델 출신으로 비주열도 강한 것도 인기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연을 맡을 수 있는



## 젊은 남자 배우의 선두격' 으로 대두

### ○ 마에가시라前頭 8(동) : 오노 마치코(尾野真千子)

- 드라마 <카네이션>으로 실력을 인정받음
- 2012년 3월말까지 방영된 NHK 아침연속소설 <카네이션>이 평균 19.1%의 고시청률을 기록
- 연기가 높히 평가되면서 '도쿄드라마어워드 2012' 주연여우상 등을 수상함
- 그 후 기린맥주 등 CF에 출연하는 것 이외에, 드라마 <서머레스큐>(TBS계)와 영화 <외사경찰> <노호노의 성>이 개봉되어 연기파 배우로써 두각을 나타낸 일 년이었음

### ○ 마에가시라前頭 8(서) : 바람의 검심(るろうに剣心)

- 드라마 <류마전>의 감독과 사토 타케루(佐藤建)가 손을 잡고 흥행 수입 30억 엔을 넘김
- 누계 5,700만 부의 인기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화
- 주인공 검심(剣心)을 연기한 사토 다케루(佐藤建)를 비롯한 배우진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액션이 화제를 모으며, 흥행수입 30억 엔의 대히트를 기록함
- 세계 64개국에서도 공개가 결정됨
- NHK대하드라마 <류마덴>(2010년)을 연출한 오오토모(大友)감독의 첫 독립 작품으로써도 주목을 받음
- 12월 26일에 DVD&BD가 릴리스되며, VOD도 같은 날 개시될 예정임

### ○ 마에가시라前頭 9(동) : 만지는 탐정 버섯 재배 키트(おさわり探偵なめこ栽培キット)

- 스마트폰게임에 등장한 조금 징그럽지만 귀여운 캐릭터가 인기를 모음
- 어드벤처게임 '오사わり 탐정 오사わり나'의 스피노프(Spinoff) 무

료 애플리케이션 <오사와리탐정 버섯 재배 키트>

- 서비스 개시는 2011년 6월(iSO판)이지만, 2012년에 들어와서 ‘버섯’ 캐릭터가 징그럽지만 귀엽다는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음
- 서적 <세계의 버섯 도감>과 <버섯 CD> 외, 인형, 문구류, 핸드폰 관련 등, 상품은 약 50사 2,000종류에 달함

○ 마에가시라 前頭9(서) :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 극장판 전후편이 흥행수입 10억 엔 돌파하는 쾌거를 올림
- 2011년 1월 분기 심야 시간대에 방송됨. 마법소녀가 된 5명의 소녀가 경험하는 가혹한 운명의 스토리가 화제를 모아, 유행어 대상 노미네이트, 각종 작품상 수상, 블루레이 판매 랭킹을 석권하는 등, “<에반게리온> 이후 사회현상이 된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얻음
- 같은 타이틀의 작품이 2012년 10월 영화로 만들어져 겨우 43개 스크린에서 시작했지만, 약 한 달 만에 전편 <시작의 이야기> 후편 <영원한 이야기>의 흥행이 누계 10억 엔을 돌파하는 히트를 기록함

	
<p>&lt;만지는 탐정 버섯 재배 키트&gt;</p>	<p>&lt;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gt;</p>

○ 마에가시라前頭 10(동) : 아야노 츠요시(綾野剛)

- 연속드라마 4편, 영화 7편에 출연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함

- 연속텔레비전소설 <카네이션>에 출연해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조용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슈호류이치(周方竜一)역할로 안방에서 화제를 모음
- 원래는 긴 머리로 영화 <크로스 ZERO II>를 비롯한 개성이 강한 역할이 많았지만, 머리를 자르고 아침드라마와 BS프리미엄 <개척자들> 등 부드러운 작품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찾음
- 영화에서는 <헬터스켈터> <바람의 검심> 등 히트 작품을 포함해 7편에 출연

○ 마에가시라前頭 10(서) : 퍼즐&드래곤즈

- 신기축의 소셜게임으로 300만 다운로드 돌파함
- 강호 온라인엔터테인먼트가 2012년 2월에 iOS용으로 개시한 소셜게임( Android판은 9월 개시)
- 확률형 아이템적인 요소와 몬스터를 키우면서 퍼즐로 배틀을 전개하는 시스템을 조합한 것으로 히트를 함
- 게임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있는 소셜게임의 신경지를 엮
- 애플리케이션 랭킹에서 수 주간에 걸쳐서 연속 1위를 차지함
- 11월 5일 시점으로 누계 300만 다운로드 돌파함

○ 마에가시라前頭 11(동) : 진じん(자연의 적P:自然の敵P)

- 음악과 더불어 소셜도 인기를 얻은 멀티 크리에이터임
- 동영상플랫폼 ‘니코니코동화’ 에서 활약한 뒤 2012년 6월에 발매된 메이저 데뷔 앨범 <메가크시디이즈>가 약 7만 장 판매됨
- 8월 14일, 15일에 일어난 사건을 다양한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그린 악곡을 베이스로 자신이 집필한 소셜 <가계로우디즈 - in a daze->도 당일 발매해, 60만 부를 넘는 히트를 기록함
- <월간 코믹진>에서 원작 만화도 연재되며 복수 매체를 이용한 프로젝트로 성공함

○ 마에가시라前頭 11(서) : 토린도루레이나(トリンドル玲奈)

- 혼혈탤런트 인기를 견인한 연기파 배우로 호감도 넘버 1의 소프트뱅크 시라토(白戸) 가족이 등장하는 CF에서 코믹한 유학생 역할을 연기하는 등, 도요타자동차 등 6사 CF에 출연함
- 예능프로그램의 게스트로도 많이 출연하며, 지명도는 크게 상승
- 로라, SHELLY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기 혼혈탤런트가 됨
- 연속드라마 <흑 여교사> <슈거레스> 출연으로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며, 모델출신임에도 활약의 폭을 넓힘

○ 마에가시라 前頭12(동) : TIGER & BUNNY

- 라이브 뷰잉에서 2만 4,000명을 동원함
- 2011년 4~9월에 심야시간대에 방송됨
- 실재 기업의 로고가 들어간 양복을 입고 싸우는 등신대의 히어로라는 참신한 설정으로 버디인 도라 토오루(虎徹)와 파트너의 절묘한 조합 등이 인기를 모아 영화화가 결정됨
- 제1탄 <극장판 TIGER & BUNNY - The Beginning->는 개봉 첫 날 이벤트로 전국 113스크린에서 라이브 뷰잉을 함
- 약 2만4,000명을 동원했고, BD & DVD를 2013년 2월 22일 릴리스할 예정임. 제2탄은 2013년 가을에 개봉될 예정임

○ 마에가시라前頭 12(서) : 구리하라 루이(栗原類)

- 미워할 수 없는 네거티브 캐릭터의 고등학생 패션모델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툭툭 튀는 부정적인 발언이 예능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음
- 영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혼혈 모델로 자신의 성격을 ‘네거티브하고 비참’하다고 말함
- 대부분의 것을 부정해 붙여진 닉네임이 ‘네거티브 모델’ 임
- 가을부터는 <와랏테 이이토모!(笑っていいとも!)>(후지테레비계열)의 수요일 고정 멤버가 되는 등,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노출되는 기회가 급증함

○ 마에가시라前頭 13(동) : Daigo

- 초현실적인 현상을 학문으로 이끈 멘탈리스트로 각광을 받음
- 심리학 등에서 나온 테크닉으로 초현상을 재구성하는 <멘탈리즘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음
- 3월에 <SMAP×SMAP>(후지테레비계열)를 계기로 대부분의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함
- 상대가 고른 색을 맞추는 독심술과 손가락 구부리기 등을 선보임.
- 저서로는 1월에 내놓은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기술 더 멘탈리즘>이 13만 부를 돌파함
- 최근에는 연애에 관한 지침서 <멘탈리즘 연애의 절대 법칙>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함

○ 마에가시라前頭 13(서) : 죠죠의 기묘한 모험(ジョジョの奇妙な冒険)

- 애니메이션화, 원화전 개최 등으로 연재 25년의 명작이 각광을 받음
- 100권을 넘는 누계 발행 8,000만 부 이상의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로, 연재 25년을 맞이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함
- 2012년 센다이, 도쿄에서 열린 원화전 <조조전>은 티켓과 상품판매 모두 조기 완판되었고, 센다이/도쿄에서 누계 13만 명 이상이 방문함
- 애니메이션은 원작의 세계관을 제대로 재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저자의 아라키 히로히코(荒木飛呂彦)편집의 무크지 <JOJOmenon>은 10만 부를 넘는 판매를 기록해 다방면에서 인기가 높아짐

○ 마에가시라前頭 14(동) : 유키사오리(由紀さおり) & Pink Martini

- ‘해외 인기’ 를 배경으로 앨범 30만 장을 넘음
- 자신의 대표곡 <요아케노스킷토(夜明けのスキット)> 등, 1969년의 히트곡을 미국 재즈 오케스트라와 커버한 앨범 <1969>가 약 30만 장 히트(오리콘 조사)함

- 2011년 11월에 전송을 시작한 뒤, 미국 iTunes의 재즈 차트 등에서 1위를 차지함
- 이것이 지상파 TV 정보프로그램 등에서 보도되면서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어 주간 차트에서 탑10에 들어오기도 함
- 2012년 10월에는 국내 22개 공연 투어도 개최해 약 4만 명을 동원함

○ 마에가시라前頭 14(서) : 드래곤즈도그마(DRAGON's DOGMA)

- 호조를 보이고 있는 캡콘의 오리지널 타이틀로 70만 장 이상 판매됨
- 인기 시리즈 작품이 연간 랭킹의 상위를 점한 가정용 게임에서 오리지널 타이틀 <드래곤즈 도그마(DRAGON's DOGMA)>가 누계 70만 장을 넘는 히트를 기록함
- 유저가 게임 세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오픈 월드’라는 일본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게임 장르이지만, 판타지 게임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리얼하게 표현해 팬을 획득함
- <바이오 하자드 6> 외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캡콘이 또 다른 커다란 비즈니스의 축으로 성장함

○ 마에가시라前頭 15(동) : 이에이리 레오(家入レオ)

- 모든 작품이 탑10에 들어온 17세 싱어, 오랜만에 정공법으로 인기를 얻은 17세 여성 싱어송 라이터로 2월에 데뷔 싱글 <사프리카>를 포함해, 싱글 3장이 주간 탑10에 들어옴
- 10월에 1st앨범 <LEO>는 2주 연속으로 2위를 차지하며, 10만 장 이상 판매가 기대되고 있음
- 자신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그린 가사와 70~80년대 록풍의 보편적인 사운드가 갖는 맛이 인기 비결
- 드라마 주제가가 된 2nd <Shine> 등, 전방위적인 노출로 폭 넓은 세대에서 지지를 얻음

○ 마에가시라前頭 15(서) : 쿠스미 마사유키(久住昌之)

- 요리 만화 <고독한 미식가>와 <하나의 간단 요리(花のズボラ飯)> 등의 만화 원작자인 쿠스미 마사유키(久住昌之)가 주목을 받음
- <하나의 간단 요리(花のズボラ飯)>는 ‘이 만화가 대단하다! 2012’ 여자편 1위에 뽑히며 대히트를 기록해 구라시나 카나(倉科カナ)주연으로 심야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함
- <고독한 미식가>도 코믹 간행에서 15년 이상을 지나서 2012년 마츠시케 유타카(松重豊) 주연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짐
- 데뷔 후 30년에 걸쳐서 “식” 만화를 계속 그려온 저자가 50세를 넘어 다시 브레이크함

○ 마에가시라前頭 16(동) : 니코니코초회의(ニコニコ超会議)

- 치바현의 마쿠하리 멧세를 점거하며 9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함
- 4월 28~29일, 동영상전송 서비스 <니코니코 동화ニコニコ動画>의 거대 페스티벌 <니코니코 초회의ニコニコ超会議>가 처음으로 개최됨
- 마쿠하리 멧세의 국제전시장 1~8홀, 이벤트 홀을 빌려서 ‘노래를 불러보았다’와 ‘춤춰봤다’ ‘정치언론’ 등, 니코동화의 인기 콘텐츠를 재현함
- 회장에는 약 9만2,000명이 모임(인터넷에서는 약 347만 명)
- 2013년 4월27일~28일에 <니코니코 초회의 2>의 개최가 결정됨

○ 마에가시라前頭 16(서) : 다나카 신야(田中慎弥)

- 독설 수상회견, ‘비엘리트’ 적인 경력으로 주목을 받은 146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수상자
-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하다’ ‘도지사 각하와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받아주겠다’ 등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수상 회견이 파문을 불러일으키며 일약 시대의 인물이 됨
- 39살에 수상했고 독신으로 어머니와 둘이 살며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정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비 엘리트’ 적인 경력도  
‘니트의 별’ 로써 공감을 얻음

- 수상작 <도모구이(共喰い)>(슈에이샤(集英社))는 5만부로 크게 히트  
한 순문학 작품으로 22만 부 발행까지 늘어남